

서평

近代日本のフードチェーン - 海外展開と地理學 -
(근대일본의 식료사슬 - 해외전개와 지리학 -)
荒木一視(아라키 히토시), 2018, 大津: 海靑社, 214쪽.

韓柱成*

현재 세계 각국의 식품기업들은 수출입 상품을 세계 각지로 유통시켜 식료사슬(food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1867~1912년[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일본이 구축한 식료사슬에 관한 지리서로, 그동안 식료의 지리학을 연구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식료지리학'이란 개념도 표방했다.

먼저 제1부 식료지리학의 계보에서는 식료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의미에서 식료자급뿐만 아니라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자급이라는 측면의 논의도 전개했다. 또 식료를 주제로 한 연구란 식료생산에서 소비까지 하나의 체계·식료사슬로 파악하고, 이 사슬에 연결된 지역 간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식료시스템론이나 식료의 지리학이라고 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식료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 100년 동안 일본은 해외로부터 항상 식료를 공급받아 왔는데, 이런 점에서 식료의 안정된 공급체계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1장[식료의 안정공급과 지리학]에서는 일본의 메이지 중기 이후 곡물의 해외의존을 파악하기 위해 쌀과 맥류, 콩의 생산량 추세 및 산업별 인구를 살펴보고, 또 쌀과 맥류, 콩, 옥수수의 생산량과 수입량의 변화, 시기별 공급국 및 수입국의 변화를 비교·설명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육류와 청과물 소비량의 추이와 주요 곡물의 1인당 소비량으로 식료수

급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런 가운데 오오마메우다(大豆生田稔)가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료수급을 4시기로, 저자는 쌀의 대외의존을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농지축소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의 식료자급률이 낮아지고 그 후 안정된 20세기 후반까지를 7시기로 구분했다. 그래서 이들 각 시기의 지리학 관련 문헌을 통해 농업생산이나 소비, 유통, 식료무역 등 농업 관련의 총괄적 연구사를 검토했다. 그리고 요약과 전망에서는 식료의 해외의존에 관한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그 내용의 질적 차이가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고, 학사적인 검토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료공급을 제일로 삼았다.

제2장[1940년대의 지리학에서 식료연구]에서는 어떻게 식료자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1940년대까지와 그 이후는 크게 단절된 배경을 가진 학사적인 전환점이고, 戰前과 戰後라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1940년대 식료공급상의 전환은 일본 내에서의 안정적인 쌀 자급체제와 1939년 한발로 동남아시아로부터 쌀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시기, 종전 이후 식료공급을 담당했던 식민지의 상실로 인한 식량부족 시기로 나누어 기존의 연구결과를 연구서와 지리학 관련 주요 학술잡지로 그 내용을 검토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연구서는 자원론적 접근방법에서 식료자원의 동향과 그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확보에 관심이 높아 해외자원의 갖춤에 초점을 두었으나, 전후 연구서는 식료부족이나 식료 난에 대처하는 문제의식으로 국내에서 식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전제로 그 내용을 구성했다.

1940년대 지리학 관련 주요 학술잡지(『地理學評論』, 『地學雜誌』)에서 『地理學評論』은 국내농업관계가 주류였고, 『地學雜誌』는 해외를 포함한 지하자원에 관심이 높아 전자는 지역론적 관점에서 분포 등을 취급한 연구들이었으나, 후자는 자원론적 연구가 특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 밖의 지리학 관련 학회지 및 잡지에서는 자원론이나 지역론적 색채가 강하거나 식료수급과 식료문제 및 농산자원의 확보와 조달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다음으로 전쟁 중과 전후기의 식료연구에서는 식민지나 국가 세력을 상실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 식료를 증산하고 자급을 위한 공급체계에 관심이 쏟아졌다고 했다. 이상의 제1부에서는 근대일본의 식료공급 해외의존과 거기에서 지리학이 수행한 역할로 식료의 지리학의 내력을 검토했다.

제2부 전전 일본을 둘러싼 식료사슬에서는 식료사슬의 정의와 식품흐름에 주목한 자원조달형과 시장개척형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 1932년 일본의 주요 농산물·식료무역량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시하고 서술했다. 그리고 제3장[전전의 일본 식품기업의 해외전개 - 다양한 식료사슬의 구축 -]에서는 먼저 전전의 일본 식품기업의 자료를 이용해 시장개척, 즉 일본제 식품의 輸·移出에 의한 판매망의 구축, 생산의 현지화 등 해외시장을 전제로 한 활동에 착안했다. 다음으로 자원조달형 사슬의 전개에서는 해외 농산자원의 조달기업 4개사(타이완산 설탕 1개사, 동베이산 콩 3개사)와 수산물 2개사의 식료사슬을 소개했다. 먼저 타이완의 제당회사 사업소 전개 및 동베이 지방 등에서의 식료자원 조달 기업의 사업소 전개를 소개하면서 해외산지에서 일본시장으로라는 틀이 기본이라 했다. 그리고 일본은 식민지와 그 밖의 공장이나 관련회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서도 식료자원

조달을 전개시켰다고 했다. 한편 수산자원의 조달에서는 2개사의 어선 추이, 어장과 주요 어획물 및 가공공장과 냉동·냉장시설을 위시한 사업소의 분포, 투자회사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해외사업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에도 판매망을 구축했다고 기술했다. 특히 제빙·냉장 공장의 설치 등 자원획득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콜드체인(cold chain)을 전쟁 중에도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개척형 사슬의 전개에서는 조미료기업 2개사, 맥주제조기업 1개사에 대해 해외시장개척은 조미료기업의 경우 일본에서 제조해 판매하다가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판매소가 지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또 맥주제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서는 국내의 합병기업과 현지 판매사업소의 지역적 전개 및 식민국가의 제조량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원조달형 사슬은 문화의 수·이출과 수용의 측면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으나 식료사슬의 형성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제4장[신의주 세관자료에서 본 전전의 한국·동베이 간 조(粟) 무역 - 일본 식료공급 시스템의 한 단면 -]에서는 먼저 1932년 한국에서의 식료수급은 동베이 지방으로부터 조를 약 22만 톤을 수입했다. 이 당시 조는 곡물 연 소비량이 쌀, 겉보리·쌀보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해외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는 일본이 쌀을 자국으로 이출해 이의 부족분을 지탱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동베이 지방의 무역을 살펴보고, 이 지방에서 한국으로의 가장 큰 무역항인 신의주항에 대해 분석을 했으며, 상품의 수출은 철도수송이 월등히 많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신의주 세관자료에서 본 주요 식료품의 발착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입품목, 발착지의 지역적 성격, 한국에서 동베이 조와 일본의 식료공급을 살펴보았다. 조는 동베이 지방의 하얼빈이나 쑤이화(綏化) 주변에서 생산되어 창춘으로 옮겨져 한국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는 선양(瀋陽)~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이용이 우위성을 갖

고 있었기 때문이며,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도 80% 이상이 공급되었다. 위와 같은 현상에서 일본의 식량공급 상 취약성의 존재를 밝혔다.

제5장[공업통계표와 타이완 무역 40년표에서 본 전전의 타이완에서 일본식품 - 해외시장 진출과 수용의 추계 -]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타이완과 일본과의 식료무역에서 타이완으로부터 설탕과 쌀이 수입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전전에 타이완이 日本食을 수용한 점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식품의 주요변용(1901~1930년)을 조미료(간장, 된장, 식초, 화학조미료), 주류(청주, 맥주, 포도주), 수산물(가다랭이 부스리기, 한천)을 대상으로 수급과 1인당 소비량 등을 살펴 일본요리에 사용된 특징적인 식재료의 보급을 파악해 일본식의 식문화 수용을 시장개척형 무역이라고 했다. 제3장~제5장까지의 제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전전 일본이 구축한 식료사슬에 주목해 식료연구의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지면을 할애했다.

끝으로 보론『경제지리학문헌총람』에 의한 전전의 경제지리학 틀과 연구동향]에서는 『경제지리학문헌총람』(논문 2,553편, 서적 4,492권을 채록)을 바탕으로 전전 일본 경제지리학의 틀과 당시의 연구동향을 파악했다. 이 책에 보론을 넣은 이유는 제1부에 전전 식료연구에서 식료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논의하고 자원론, 환경론에 관한 많은 연구축적이 전전의 지리학에도 존재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했다. 먼저 전전의 경제지리학과 『경제지리학문헌총람』에서는 각 시기에 출판된 서적의 내용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목차 항목에서 본 전전의 경제지리학 틀에서는 12개의 대항목으로 구분하고 소항목의 문헌수(논문·서적)의 구성비를 파악해 그 특징을 기술했으며, 또 1925~1935년 사이의 대항목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경제지리학 내용구성과는 다르게 식료시스템론의 관점에서 볼 경우 상품사슬이나 가치사슬과 같은 개념 등이 각 산업에도 입되지 않았으며 상품에 초점을 둔 관점이 짙다고 했

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전전 경제지리학의 틀을 비교해 현재는 산업별로 구분하고 그 안에 자원론, 상품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 전전은 경제지리(자원론), 산업지리, 상업지리·상품학이 상위에 배치된 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론은 식료사슬을 둘러싼 경제지리학의 내용으로 발달사 연구에 이용했으면 한다.

마지막 후기에서는 각 부의 내용 설명과 식료사슬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기에도 식료기업의 해외진출로 이 개념이 유효하고 지리학연구에서 식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책 각 장을 구성한 초출의 기존 발표 학회지의 소개와 보론에 대한 후일담을 적어놓았다.

이 책은 보론을 제외하고 일본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 재집필한 것으로, 종래 일본의 지리학회지나 서적 및 식료관련 연구물들을 시기별로 모두 섭렵하여 학사적인 관점에서 식료사슬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근대일본의 사례연구를 소개했다. 그러나 식료사슬의 생산지, 가공지, 유통거점, 소비지에 대한 지역구조형성과 연결 메커니즘 및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식료사슬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킴으로서 학문의 맥을 이어가는데 공헌했고, 학문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업지리학 분야의 식료사슬뿐만 아니라 상품사슬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책은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신: 韓柱成, 0550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신천동, 파크리오) (이메일: jshan@chungbuk.ac.kr, 전화: 02-416-0316)

Correspondence: Ju-Seong Han, (Parkrio, Shincheon-dong), 435 Olympic-ro, Songpa-gu, Seoul city, 05507 Korea (e-mail: jshan@chungbuk.ac.kr, phone: 02-416-0316)